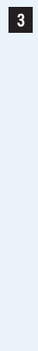
‘시민의 발걸음으로 활력 되찾아’… 제21회 수원화성돌기 성료

역사문화체험 시민 250여명 참가
남녀노소 함께한 수원화성돌기
스탬프투어·경품행사 즐거움더해



❶ 16일 화성행궁광장에서 진행된 2026 제21회 수원화성돌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성곽길을 걷고 있다. ❷ 16일 화성행궁광장에서 진행된 2026 제21회 수원화성돌기에 참가한 어린이가 스탬프 북을 채우고 있다. ❸ 16일 화성행궁광장에서 진행된 2026 제21회 수원화성돌기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우민 수습기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시민들의 발걸음과 웃음으로 생기를 되찾았다.

경기신문이 주최하고, 수원문화원이 주관하며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6 제21회 수원화성돌기’는 16일 화성행궁광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표명구 경기신문 대표를 비롯해 김병익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곽도영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시민 250여명 등이 참석했다.

수원화성돌기는 화성을 걷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는 경사가 완만해 4살 어린이부터 81세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짜였다.

참가자들은 화성행궁광장에서 출발해 ▲수원화성박물관 ▲동남각루 ▲연무대 ▲화홍문 ▲장안문 ▲화서문 ▲서장대를 지나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거닐며 화성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출발에 앞서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고, 다 함께 몸을 풀며 현장 분위가 고조됐다.

참가자들은 18세기 과학·건축·예술의 정수가 스며든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 풍경 속을 여유롭게 음미했다.

또, 코스 곳곳에 준비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스탬프 북을 완성하는 색다른 즐거움도 더했다.

화성행궁은 건축 기술과 독창적인 형태, 다양한 디자인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출물이다. 1997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걷기 활동을 넘어 수원화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표 대표는 “과학과 건축, 예술이 살아 숨쉬는 수원화성에서 여름의 정취를 느끼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문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1년 중 가장 좋은 날에 수원화성을 돌게 됐다”면서 “지난해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 대표는 “정조대왕이 만든 수원화성에서 수원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조대왕의 효심, 국민에 대한 애민 사상을 함께 느끼면서 좋은 추억도 남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화성돌기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배지가 제공됐으며 경품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돼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창현 기자

제21회 수원 화성 돌기 행사 ‘이모저모’

최고령참가자 화성향한 애정 눈길
정조 숨결따라 역사문화체험 만끽

(왼쪽)제21회 수원화성돌기 최고령 참가자인 김훈동(84·수원시)씨 (오른쪽) 참가자 조재우(56·용인시)씨.

경기신문이 주최하고 수원문화원이 주관,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한 ‘2026 제21회 수원화성돌기’ 행사가 16일 오전 수원행궁동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 정조의 숨결이 깃든 성곽길을 함께 걸었다.

행사 최고령 참가자인 김훈동(84·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씨는 “수원 화성은 박제된 유적이 아니라 시민 삶 속에 살아 있는 성곽”이라며 “걸을 때마다 도시의 역사와 사람 사는 온기가 함께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구독자인 김 씨는 신문에 실린 행사 안내를 보고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을 했다. 그는 “올해는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한 지 230주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걷다 보면 정조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성곽과 건축물을 만들었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걸으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며 화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씨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신문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며 “경기신문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조재우(56)·김은영(53) 부부는 이날 가장 먼저 완주 지점에 도착했다.

조 씨는 “수원 화성은 자주 걷는 곳이라 코스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며 “평소에도 러닝을 하고 하루 8000보 이상은 꼭 걷는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돌기 행사는 처음인데 아내가 권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완주 기념으로 받은 마스크와 담요도 실용적이라 만족스럽다”고 웃어 보였다.

글·사진= 남윤희 기자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앞두고 18일 재협상

성과급 기준 놓고 입장차 여전
총파업 전 막판 타결 여부 주목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사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추가 중재로 마련되는 협상의 장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보상 제도를 두고 타협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총파업을 3일 앞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중노위는 이후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가 사후조정은 한 차례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노사 당사자가 동의하면서 닷새 만에 다시 진행되게 됐다.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사후조정은 ‘노사가 힘을 모으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호소와 정부의 직접 중재 등 삼성 안팎에서 분주하게 이어진 사태 해결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다.

노측은 영업이익 15%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인 상한 폐지를 영구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면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창현 기자

경기남부청, 책임수사 견인할 1분기 우수 수사팀 뽑았다

마약·사기·강력사건 해결팀 표창
최우수 8개팀 인증패·역량강화

경기남부경찰청 강당에서 지난 15일 올해 1분기 우수 수사관서와 수사팀 시상식 기념촬영 현장.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1분기 우수 수사 성과를 낸 관서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하며 수사경찰의 사기 진작과 책임수사 강화에 나섰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5일 2026년 1분기 우수수사 관서·팀으로 선정된 경찰관 27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수사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우수수사 관서와 팀을 선정해 정기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총 637개 팀(반), 3276명을 대상으로 경찰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 등 수사품질 지표와 수사팀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관서 8곳과 우수팀·반 27곳을 선정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분야별 1위를 차지한 경찰관 2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최우수 평가를 받은 8개 팀에는 별도의 인증패도 전달됐다.

우수 수사 관서·팀에는 무면허 보톡스 시술 혐의로 의료법 위반 피의자 4명을 구속한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선정됐다. 해외 투자회사를 사칭해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의 수거·전달책 3명을 검거해 구속한 시흥경찰서 지능팀도 포함됐다.

으뜸 형사 관서·팀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마약 범죄를 벌인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한 수원팔달경찰서 형사과가 차지했다.

또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한 평택경찰서 강력3팀 등이 선정됐다.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유전자 채취를 통해 쇼핑몰 절도 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기여한 수원팀 2반이 우수 과학수사반으로 선정되는 등 총 4명이 표창과 인증패를 받았다.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은 “수사경찰들이 증가한 업무량과 높은 책임감 속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걸맞은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호 기자

사건 24시

용인 회전교차로 승용차 화재 2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17일 오전 2시 14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궁리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가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으며, 화재는 약 14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진화 작업 이후 차량 내부에서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은 회전교차로 중앙 연석을 충돌한 뒤 버스정류장 인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이후 엔진룸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과속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정용 기자

“체험학습 위축은 교사 아닌 교육부 탓”

가천대 황광선 교수 기고 후폭풍
경기교사노조, 제도 개선 촉구

경기교사노조는 황광선 가천대학교 교수의 ‘제도 뒤에 숨지 말고 민원을 다루는 힘을 키워라’는 기고(14일자 경기신문 7면 보도)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황 교수는 교육 전문 매체 기고를 통해 교사들이 민원과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운동회와 현장체험학습 등을 축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요구보다 민원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해당 글은 논란 끝에 본인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17일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채유경)은 <경기신문>에 입장문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민원을 감당할 역량만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패도 주지 않은 채 총알받이로 세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념이 옳다면 옳은 판결을 기대하라는 식의 주장은 매일 교육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교사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교사들이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부담이 아니라 교직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료 교사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

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과 민원·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과 직업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윤희 기자